

“지소미아 정상화...군사정보 협력 강화”

<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서 밝혀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긴밀 연대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기반으로 양국의 안보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2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의 정상회담 등 방일 성과와 앞으로의 한·일 관계 비전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안보와 관련해 “저와 기시다 총리는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안보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제가 일본으로 떠나기 두 시간 반 전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며 “저는 북핵과 미사일에 관한 완벽한 정보공유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한일 정상회담에서 전제 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할 것을 선언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국방부와 외교부에서도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시행했다”며 “2019년 한국이 취한 지소미아 종료 선언과 그 유예로 인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이번엔 확실하게 제거함으로써 한·미·일, 한·일 군사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양국이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일에 서면 통보

이날 외교부는 문자 공지에서 “정부는 금일 오전 외교 경로를 통해 2019년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관련 두 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 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소미아는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 간 맺는 협정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사안별로 엄밀한 검토를 거쳐 같은 수준의 비밀정보를 주고 받는다. 김철환 기자



제8회 서해수호의 날을 앞둔 21일 서해상에서 진행된 해상기동훈련에서 해군2함대 함정들이 제2연평해전 교전 시간인 오전 10시25분에 맞춰 일제히 함포를 발사하고 있다. 사진 맨 앞부터 3200톤급 구축함(DDH-1) 을지문덕함, 2800톤급 호위함(FFG-II) 서울함, 1000톤급 초계함(PCC) 공주함, 450톤급 유도탄고속함(PKG) 박동혁함. 조종원 기자

해군, 서해수호의 날 맞아 전 해역서 해상기동훈련

함정 20여 척·항공기 20여 대 투입
대함·대잠 실사격 강도 높게 시행
영해 사수 필승의 결전태세 확립

해군이 제8회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영해 사수 의지를 기리고, 결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동·서·남 전(全) 해역에서 해상기동훈련에 돌입했다.

해군은 21일부터 24일까지 실사격 훈련을 포함한 해상기동훈련을 대규모로 펼친다.

훈련에는 3200톤급 구축함(DDH-1) 을지문덕함, 2800톤급 호위함(FFG-II) 서울함, 1만4500톤급(LPH) 독도함 등 함정 20여 척과 해상작전헬기·해상초계기 등 항공기 20여 대가 투입됐다.

이번 훈련은 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 사건·연평도 포격전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지키다 산화한 전우들의 영해 사수 의지를 기리고, 적 도발에 조건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결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훈련 기간 동·서해에서는 1·2함대가 적의 기습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잠수함전, 대함·대공 실사격 등을 강도 높게 시행한다. 남해에서는 3함대가 적의 후방 침투를 차단하고, 주요 항만을 보호하는 훈련을 한다.

특히 각 해역에서는 제2연평해전 교전이 벌어진 오전 10시25분에 대함사격을, 천안함 피격 시간인 밤 9시22분에 대잠사격을 벌여 필승의 결전태세 의지를 현시한다.

안상민(소장) 2함대사령관은 “서해 수

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해군·해병대 전우 55명의 숭고한 희생정신은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결전의지로 이어졌다”며 “평화를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고도의 결전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군은 천안함 피격사건 13주기인 오는 26일까지 △결전태세 확립을 위한 전술토의 △장병 특별 정신교육 △해양수호 결의대회 △사이버 추모관 운영 등으로 장병·군무원들의 영해수호 의지를 고양할 계획이다. 이원준 기자